

# 구례중 “줄줄이 놀면서 줄줄이 배워요! 우리는 즐거운 학생”

### 놀면서 배우는 인성 캠프·느끼자 시네마·응급처치 등 웃음으로 공동체 되기 등 ‘공감능력’ 기르는 시간 가져

구례중학교(교장 장이석)는, 7일~9일에, ‘줄 줄이 놀면서 줄줄이 배워요’라는 주제로, 놀면서 배우는 인성 캠프, 놀면서 느끼자 시네마,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우리는 하나, 탈춤 등을 실시하였다.

7일은 ‘함께 더 놀자, 함께 더 배우자’를 주제로 하는 인성 캠프를 하였다.

웃음으로 공동체 되기 등 ‘공감능력’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다. 팀빌딩, 아이스브레이킹, 인사예절연습, 분노조절 테스트, 의사소통능력, 갈등해소능력, 평상시 대화와 욕에 대한 고찰, 낙하산 달리기, 돌이서 한마음, 지구를 옮겨라,

림보게임 등의 활동을 하였다.

8일은 ‘놀자 시네마 느끼자 시네마’ 시간을 가졌다. 학생이 영화를 선택해서 본 후에, 토론하면서 공감 능력을 기르는 교육활동이다.

물론, 코로나에 대비하여 이동시, 관람시 거리두기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하였다. 극장은 지역사회의 ‘구례자연드림 시네마’이다.

9일은 ‘지리산학생수련장’이 ‘찾아가는 수련 활동’을 학교에서 했다.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우리는 하나, 탈춤 등의 활동이다.

심폐소생술의 키포인트는 ‘가슴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의 반복, 인공호흡이 어려우면 분

당 100~120회 가슴압박 지속’을 실습으로 체득하였다.

심성빈 학생은, “함께 놀며 배웠습니다.”라며, “친구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놀며 공감하였어요. 마련해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는 배움이 즐겁고 행복한, 당당한 학생입니다.”라고 말했다.

서경숙 지도교사는, “이번 ‘놀면서 배워요’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구례자율혁신학교 프로그램이지요. 여러 교과가 융합되어 놀이로, 여러 창의가 융합되어 배움으로 변했어요. 교사가 동료애로 몸쳐서 교과융합수업을 하니, 교사도 학생도 행복합니다.”라고 말했다.

김형규 교감은, “학교는 스포츠, 예술, 인성 교육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실력이 자라게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 장성교육청, 맨투맨 온라인수업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기존 연수 패러다임 전환한 혁신적 연수 운영

### 개별 교사 맞춤형 강의 운영으로 호응 얻어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최미숙)은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연수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수업 역량 강화 연수를 총 20회에 걸쳐 실시했다.

장성교육지원청은 기존 연수가 대다수 원거리, 집합 연수 형태로 이루어져 교사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정보화기기에 익숙하지 않는 교사의 참여가 부진한 점을 극복하고자, ‘강사 1명, 연수생 1~2명의 맨투맨 연수’형태로 계획했다.

지원청은 관내 원격수업 지원단 인력풀을 활용하여 강사단을 구성하고 1단계 성취기준 중심 교사주도형, 2단계 과정중심

평가 중심 수업, 3단계 협업 프로젝트 중심 학생주도형 수업 등 수준별 프로그램을 상세히 안내하고 선생님의 온라인 수업 역량을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인력풀의 강사를 매칭하였다.

특히 이번 역량강화 연수는 실시간 대화 중 자료 연결, 실시간 화면녹화, 등 컴퓨터 기본프로그램 운용방법부터 zoom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 노하우, 구글 클래스룸 활용 방법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2차 팬데믹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교육을 위한 교사역량 강화에 방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 전남교육청, 학교관리자 온라인 양성평등교육 실시

### “인권 기반 양성평등교육, 이번에는 학교관리자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교육 현장에 양성평등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7월 ‘양성평등조직문화를 위한 성인지각수성 함양 방안’을 수립한 뒤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직원, 학교 내 양성평등교육 담당자, 양성평등현장지원단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양성평등교육을 펼치고 있다.

이번 12월에는 초·중·고·특수학교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 양성평등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9일 오후에는 그 첫 번째 교육으로 성공회대학교 조효제 교수가 ‘인권의 기본이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교육은 양성평등을 여성만을 위한 권

리주장으로 오해하며 역차별을 말하거나 남녀갈등의 원인으로 보는 최근의 일부 오해를 종식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줬다.

양성평등의 문제는 여성·남성이라는 성별을 고려한 인권 문제로 남녀를 떠나 민주 시민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온라인을 통해 교육에 참가한 학교관리자들은 “성인권이야말로 가장 첨예한 인권의 문제임을 알게 됐다. 인권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인권과 권리주장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 권리주장을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볼 인권의 준칙들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인권의 관점에서 성인권을 바라보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성인지각수성’으로 소통하는 교사되기, 인권과 성인권, 우리에게 필요한 성인지각수성, 사례로 보는 양성평등교육 등 다양한 각도에서 양성평등의 문제를 접근함으로써 양성평등 전남교육의 길을 넓혀왔다.

이병삼 전라남도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학교장이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학교문화를 이끌 수 있도록 인권을 기반으로 한 양성평등의 방향성을 제시한 깊이 있는 교육이었다.”고 밝혔다.

오는 15일에는 전남여성가족재단의 안경주 원장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례를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사례로 보는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한다.

김정환 기자

## 광주 월산초등학교, ‘SW 페스티벌’ 성료

### 조선대 SW 중심대학사업단 및 소바세 교육연구소와 함께 실시

광주월산초가 조선대 SW중심대학사업단·소바세 교육연구소와 함께 지난 7일 3~4학년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교내에서 실시한 ‘SW(소프트웨어) 페스티벌’을 성료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월산초 학생들은 네 시간 동안 운영된 ‘SW 페스티벌’에서 AI·AR예술체험 및 Turtle Robot·Alpha1 Robot과 함께 하는 SW코딩놀이 시간을 가졌다.

특히 3학년 학생들은 Turtle Robot을 직접 코딩해 미션을 해결하고, 친구들과 함께 Turtle Robot으로 ‘학교중’, ‘비행기’ 합주도 했다. 4학년 학생들은 SW코딩교육을 통해 ‘Alpha1 Robot 축구’, ‘Robot 군무 미션’을 해결하는 등 직접 로봇을 제어·조작하는 경험을 가졌다.

조선대 SW중심대학사업단 조영주 담당교수는 “학생들은 즐겁고 재밌는 SW코딩교육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CT)과 논리적인 사고력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다”며 “광주월산초 학생들은 이번 ‘SW 페스티벌’을 통해 SW코딩교육을 어렵지 않고 즐겁고 재밌는 것으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